

1950년대 월남 기독교인의 국가윤리와 사회인식*

윤은순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해방 후 기독교인의 월남과 남한 정착
- III. 월남 기독교인의 국가 건설론과 국가윤리
- IV. 대정부 인식의 분화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1.05>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6S1A5B8913950).

• ABSTRACT •

The National Ethics and Social Perception of North Korean Protestant Defectors in 1950's

Yoon Eun-so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social ethical perspective based on the thought of nation by the Christian leaders of whom escaped from Northern part of Hahn-peninsular after the liberation of Japanese colonization. Christians who escaped socialism dreamed of building a Christian nation. Han Kyungjik recognized Christianity and democracy the same. The state must be worthy of its protection and must be within the bounds of a lawful democratic process. He also emphasized the awareness and effort of Christian individuals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and said that the church had the power to do so. Kim Jaejoon emphasized to build the kingdom of God in reality. The state is indispensable to exist because of human sin. So it must be democratic and free. Like Han Kyungjik, he insists on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and sovereignty of God. Because sovereignty is in God, democracy exists under Christianity. Christian politicians should play a prophetic role in proclaiming God's sovereign intent, and the church should raise leaders to lead the people. On the whole, the North Korean Protestant Defectors insisted on democracy and anti-communism, and were favorable to the government, which had many Christians. During the First Republic, the North Korean Protestant Defectors have been defined as pro-government, anti-communist, conservative, and pro-government. In the late 1950s, however, when the government began to be incompetent and corrupt,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nd reflection on the church began within Christianity.

Key words: North Korean Protestant Defectors, Settlement, Christian Nation Construction, National Ethics, Social Perception

I. 들어가는 말

월남 기독교인¹⁾이라고 명명되는, 해방 후 전쟁과 이에 따른 이주라는 특수한 사건을 경험한 계층이자 한국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력들의 남한 사회로의 이동은 남한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재고하게 한다. 기독교 수용 이래 일제시기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서북지역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월남인의 남한 정착과 이후 이들의 활동은 교계의 재편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의 정치 및 사회 각 방면에서 두루 유의미한 행적을 남겼다. 특히, 다수의 엘리트 월남 기독교인들이 남한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월남 기독교인들의 사회인식은 월남인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를 갖기에 이른다. 이에 월남 기독교인들에 대한 연구는 월남인 전체를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²⁾

월남 기독교인들에 관한 선구적 연구로서 강인철은 월남 기독교인들을 ‘친미보수 반공’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월남 기독교인들이 제1공화국의 특

- 1) 일반적으로 기독교라 하면 개신교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북한지역 월남인의 절대 다수가 개신교였다든 점에서 이 글에서는 개신교로 한정한다. 또, ‘월남 기독교인’은 과거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기독교인으로서 해방을 전후한 시기부터 1953년 휴전까지의 기간 동안 남한으로 와 정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2) 월남인에 대한 연구는 월남동기와 이동으로 시작하여 최근 각 지방에의 정착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형, 박명선,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와 한국사회』(서울: 까치, 1985); 강정구, “해방 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서울: 풀빛, 1992);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논문, 1999.; 김아람,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 『역사문제연구』 제35집 (2016); 김아람, “한국전쟁기 황해도민의 서해안 피난과 전후 전라남도 정착” 『동방학지』 제180집 (2017); 이세영, “해방-한국전쟁기 인천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동방학지』 제180집 (2017); ;한성훈, “월남민의 서사: 출신지와 이산가족, 신념, 전쟁 체험을 중심으로.” 『史林』 제60집 (2017); 한성훈, “월남 지식인의 정체성: 정치사회변동과 자기 결정성.” 『동방학지』 제180집 (2017).

혜를 받으며 국가-자본-교회간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남한 사회에서 부상하였다고 분석하였다.³⁾ 윤정란은 일제시기부터 큰 세를 형성했던 서북지방 장로교 세력이 다수 월남하면서 월남인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구호물자 배포를 주도하고 1950년대에 강력한 반공 세력이자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하고 있다.⁴⁾ 최근 김아람은 제주도 정착 월남인의 삶을 추적하는 가운데, 기독교가 월남인의 입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민간신앙이 깊은 제주도에 다수의 장로교회를 비롯하여 감리교와 성결교회가 처음 자리잡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⁵⁾

그동안 월남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해방 전 북한지역에서 큰 세를 형성했던 기독교 엘리트들이 해방 후 북한체제에 불만을 갖고 월남하여 미군정시기와 1공화국시기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종교(교권) 등 각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친정부적’ ‘보수 반공’의 보루로 기능했다는 것으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모든 월남 기독교인들을 ‘친정부적’이며 ‘보수적’이라고 일원화하기 어렵다. 월남인 전체의 정체성을 단일화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⁶⁾ 월남 기독교인들도 월남 동기와 시기, 정착 환경, 정치적 성향, 신학

3) 강인철,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해방 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사비평』 제19집 (1992); 강인철, “남한사회와 월남기독교인 : 극우반공체제하의 교회활동과 반공투쟁”, 『역사비평』 제23집 (1993).

4) 윤정란, “한국전쟁 구호물자와 서북출신 월남기독교인들의 세력화”, 『송실사학』 제34집 (2015).

5) 김아람,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 『역사문제연구』 제35집 (2016).

6) 김귀옥은 그 동안 월남인들에 대한 성격이 몇 가지 통념으로 고착되어 있음을 밝히고 월남인의 성격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김귀옥, “아래로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 정착촌 월남인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43집 (1999).; 김귀옥,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1999).

적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 같은 인물에게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월남 기독교인들에 대한 규정이 1공화국 시기 정권과 밀착되어 경직된 반공이념을 견지했다는 것으로 고정화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월남 기독교인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해 가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국가건설을 염원했는지, 정부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 정치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기독교계의 사회인식 및 활동도 이전과는 많은 변화를 갖는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해방 후 1950년대까지의 시기에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II. 해방 후 기독교인의 월남과 남한 정착

대체적으로 해방 후 한국전쟁까지 월남인 수는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⁷⁾ 1960년 인구 총조사에 나타난 월남민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서북 지역인 평안도와 황해도가 전체의 71.5%를 차지하고 함경도는 28.5%를 차지하고 있어, 서북출신의 월남인 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⁸⁾

7) 월남인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연구자마다 대부분 추정치를 보이고 있다. 외무부자료, 사회부자료, 인구센서스 자료 및 미군정 자료들을 이용되었는데, 각 자료마다 조사하고 있는 대상이나 시기나 달라 그 편차가 크다. 외무부 자료(『조선경제연감』 1949년판 4권 19쪽)에 의하면 1945년 8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월남인 수는 648,784명, 사회부 자료(『조선경제연감』 1949년판 4권, 238쪽)에 의하면 1948년 3월 현재 월남인 수는 456,393명, 1949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944년부터 1949년 5월까지 월남인 수는 481,000명, 미군정 자료(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1948)에는 1945년 10월부터 1948년 8월까지 622,044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한국전쟁 이후 월남인까지 합쳐 대략 100만에서 150만 정도의 월남인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김보영, “분단과 전쟁의 유산, 남북 이산(분단 디아스포라)의 역사”, 『역사학보』 제212집 (2011), 98~99.

8)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413.

이 중 월남 기독교인의 수는 7~8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해방 당시 북한의 기독교인을 20만 명 정도로 볼 때, 35-40%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다.⁹⁾ 1942년 통계에 의하면 장로교회 세례 교인수는 110,002명이고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북한 지역의 세례교인 수가 74,528명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어 장로교에서 북한 지역 특히,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방의 교세가 압도적이었다.¹⁰⁾ 이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기독교인들의 대규모 월남은 남한 기독교계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후 그 영향력이 기독교계의 대표적 위치에까지 이른다.

1947년 8월 15일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월남하여 서울에 거주하던 목사들이 주축되어 ‘이북신도대표회’를 발족시키고 미북장로선교부로부터 상당한 선교비를 후원받으면서 남한 교계의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자리 잡아갔다. 평양신학교에 재학중이던 신학생들까지 대거 월남하면서 1947년 4월 현재 조선신학교 재학생 306명 중 약 3분의 1이 북한에서 내려온 학생들로 채워졌다.¹¹⁾ 월남한 교역자들은 북한 출신 목사의 증명으로 노회에 이명이 확정되어 그 신분을 보장받았고 총대수도 확보할 수 있었다.¹²⁾

9) 강인철,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해방 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133~135.

10) 일제시기 선교지 분할 협정 이후 북한지역에서는 감리교 및 기타 다른 교단에 비하여 장로교의 교세가 월등했다.

(장로교 지역별 세례교인 수(1942))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경기·충청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계
49,456	17,204	7,868	5,714	16,284	13,476	74,528

총회년사발간위원회 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년사』 제1권(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부, 2006), 25~29.

11) 김관식, “한국의 기독교회”, 김홍수 편, 『해방 후 북한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1992), 312.

12) “38이북 목사로 노회에 이명코저 할 때는 노회가 신임하는 38이북출신 목사의 증명으로 이명받기로 하다”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33회회록』 (1947), 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37회회록』, (1952), 165.

월남 기독교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바로 월남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반공’은 월남 기독교인들 스스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강력한 월남 동기였다.

해방 후 북한 각 지역에서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 수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평양에는 조만식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 평안북도에서는 장로 이유필에 의한 평북자치위원회, 황해도에서는 목사 김응순에 의한 황해도건국준비위원회 등이 조직되었다. 그런데 소련군이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자 기독교인들은 이에 맞서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였다. 1945년 9월 초 신의주에서 목사 윤하영과 한경직이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고, 11월 3일에는 평양에서 조만식 중심의 조선민주당이 조직되었다.¹³⁾

그러나 북한공산주의 세력과 기독교인들은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1945년 11월 신의주학생 사건으로 사회민주당 간부들이 체포되었고 이를 피해 윤하영, 한경직, 함석헌 등이 월남하였다. 1946년 1월 조만식도 체포되어 연금되고, 이운영을 비롯한 당원들은 월남하였다. 1946년 10월 북한 지역 장로교 대표기관이었던 5도연합노회는 임시인민위원회에 5개조의 결의문을 전달하고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일로 지정된 일요일에 기독교인들이 투표할 수 없다고 하며 북한 당국과 충돌하였다. 1946년 3월 실시된 토지개혁도 중소지주 및 중소상공인을 기반으로 했던 북한 지역 기독교인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부터 받은 사상적 경제적 도전은 월남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결심하는 큰 이유가 되었고 강력한 반공이 이들의 성향으로 자리 잡게 된다.¹⁴⁾

1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384~393.

14) 강정구, “해방 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서울: 풀빛, 1992), 112~113.

한편, 월남시기가 이룰수록 남한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전쟁 이전 월남한 이들은 대개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남한행을 결정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 준비까지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¹⁵⁾ 특히 지주, 자산가 층이 많았던 기독교인들의 월남은 북한의 토지개혁 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¹⁶⁾

물론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되었다 할지라도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의 정착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정부당국의 월남민 대책은 거의 없었다. 미군정은 다른 전재민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취급하였다.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중앙전재민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의 후생국, 시도 보건후생국 등이 전재민 문제를 집행하는 부서였으나 인력과 재정 모두 부족한 형편이었다. 연고 없는 남한에서 지방에 정착해서 살기 어려웠던 사정에 구직과 학업을 이유로 서울과 경기도에 월남인의 70% 가까이 집중되면서 주거, 식량문제가 큰 골칫거리였다.

이에 월남 기독교인들은 ‘피난민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다.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 상호간의 구호를 통해 남한정착을 모색한 것이다.¹⁷⁾ 대표적 피

15) “그런데 요즘 월경하는 전재민은 거의 침구와 우선 입을 옷가지는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다고 한다. 현금도 거의 천 원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중일보』 1947년 11월 18일(이현주, “해방후 인천지역의 戰災同胞 귀환과 사회변화”, 『인천학연구』 4(2005). 258.에서 재인용)

16) 1946~1948년까지 월남인의 년·월별 분포(단위: 명,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45													184,235
1946	13,306	20,437	34,437	50,450	25,818	17,203	8,212	4,739	2,234	2,997	4,740	635	185,208
1947	706	166	8,096	28,443	40,164	25,631	13,295	11,374	13,623	9,533	7,715	4,487	163,233
1948	2,664	4,005	11,855	15,848	12,391	15,473	17,295	7,450	11,718	7,764	5,958	3,396	115,807
계	14,012	20,608	42,533	78,893	65,982	42,834	21,507	16,113	15,857	12,530	12,456	5,122	648,484

자료: 조선은행, 1949: IV-19 (김귀옥, “해방직후 월남민의 서울 정착-월남인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접근”, 『전농사론』 제9집 (2003), 68에서 재인용)

17) ‘장렬한 신앙운동- 평양 대신리교회교인들의 활약’, 『기독교공보』 1952년 4월 14일.

난민 교회로서 1945년 10월 월남한 한경직이 월남인 27명과 함께 세운 영락교회가 있다. 일제시기 천리교 경성분소 자리에 세워진 영락교회는 일개 교회가 아니라 월남 기독교인들의 생활공동체이자 정체성을 부여하는 곳으로서 기능하였다.

“한경직은 영락정 천리교경성제일교회자리에서 지금의 영락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이름은 ‘베다니교회’라 했다. 이북 피난민들의 마음의 보금자리라는 뜻에서였다.(중략) 이북피난민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그리고 거기서 안식처를 찾는다. 고향을 떠났지만 거기서 고향을 느낀다. 피난 보따리와 함께 고향도 같이 온 셈이다.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고향을 옮겨 온 것이다. 몇 달 안되어 서울서 제일 큰 교회가 됐다”¹⁸⁾

영락교회는 월남기독교인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혈육의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 의지하는 ‘안식처’로, 기도의 장소이자 ‘난민의 생활터전’이었다. 교회 안에서 먹고 자면서 그들의 공동체 의식은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속력은 교회 성장으로 이어졌다.

피난민교회는 월남인에게 현실적 혜택으로서 구호물자 제공, 직업 알선, 교육기관 설립을 통해 남한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이동을 추구했다. 또한 종교적 기능으로 정신적 안식과 피난처로 기능하였다. 피난민 교회의 이러한 역할은 월남 기독교인의 남한 정착을 돕고,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켰다.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직이 되거나 용자를 얻어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등 남한 내 연고자의 여부가 정착의 큰 변수가 되었던 당시에 월남이라는 동일한 행위와 지연, 종교적 유대감을 가진 이들은 강한 결속력으로 묶일 수 있었다.¹⁹⁾ 여기에 북한체제를 거부하고 종교적

18) 김재준, “범용기1: 새역사의 발자취”, 『김재준전집』 제13권 (오산: 한신대학교출판사, 1992), 338.

순수성을 지킨 ‘반공투사’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해갔다.²⁰⁾ 또한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재편성되면서 교단 기관지 등을 통해 월남 기독교인, 나아가 월남인을 대표하며 여론을 주도해 갔다.

한편, 전쟁 후 월남한 이들은 피난으로 급히 내려오면서 비자발적으로 떠밀려 온 경우가 많았다. 사전 준비없이 갑자기 내려온 경우가 많았고, 일시적 피난으로 생각해 가족을 남겨둔 채 단신으로 혹은 가족 중 일부만 월남한 경우도 많아 이산가족으로 남는 수가 많았다. 또, 해방 직후 월남한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내려오면서 정착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수많은 피난민 속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이전보다 훨씬 열악했다. 정부의 피난민 대책이 거의 없는 가운데, 당시 신문에는 ‘동포애’와 ‘민족적 양심’을 발휘하여 월남민을 도와주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는 전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²¹⁾ 전쟁 전 중상층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월남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층계급이 피난으로 내면오면서 이들의 입지는 좁았고, 그 목소리도 작을 수 밖에 없었다.

기독교인들의 월남은 전쟁 전, 해방 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정치·사상적, 경제적 이유로 자발적 월남을 하면서 상당수준의 준비를 한 경우가 많았다. 또 북한지역에서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토지개혁 직후 대거 남하하고 교역자들의 월남도 이 시기에 집중되면서 월남 기독교인들은 전쟁 후 급히 내려온 월남인들에 비해 비교적 남한사

19) 서울 뿐 아니라 지방 각지에서도 월남인들의 정착에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세영, “해방~한국전쟁기 인천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동방학지』 제180집 (2017).; 김아람,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 『역사문제연구』 제35집 (2016).

20) ‘십자군 출신의 기독교병사들’, 『기독교공보』, 1952년 5월 26일.

21) ‘食糧과 衣服을 주어 避難同胞를 따뜻하게 맞이하자- 허 社會部 長官 전동포에게 호소’, 『동아일보』 1950년 12월 15일

회에 잘 정착해갔다. 여기에는 피난민교회의 역할이 컸다. 기독교인 엘리트들의 정치적 진출도 활발하고 교회 내에서의 세력도 커지면서 일반인들에게 월남 기독교인들은 상층부로 인식되었다.²²⁾ 이들이 월남 기독교인들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월남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를 대표하게 되었다.

III. 월남 기독교인의 국가 건설론과 국가윤리

해방 후 기독교인들은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독교 국가'를 꿈꾸었다. 해방 직후 북한지역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기도한 경험을 가진 월남 기독교인들은 남한에서 김구, 김규식, 이승만 등을 비롯한 기독교인 정치지도자들이 귀국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밝히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대표적 월남 기독교인이자 월남 기독교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한경직과 김재준은 각각 「건국과 기독교」, 「기독교적 건국이념」을 통해 '기독교 국가 건설'을 주장하였다.²³⁾ 이들은 혼돈의 해방공간에서 건전한 사상수립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내었다.²⁴⁾

한경직은 1947년 교회창립 2주년 예배에서 「건국과 기독교」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는 반드시 기독교이어야 한다”고

22) “나는 결코 부유층도 기독교 신자도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지만,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기독교도의 의견이라며 일축했다” 선우휘, “나의 언론생활 40년①”, 『月刊朝鮮』 (1986.4), 447.

23) 이혜정, “한경직 연구의 관점: 기독교적 건국론”, 『한국기독교와 역사』30(2009); 고지수, “해방 후 장공 김재준의 '기독교적 건국론' 이해-사료『기독교의 건국이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4집 (2014). 참고

24) 1947년 1월 열린 '기독교사상문제대강연회'에서 김재준은 '기독교와 사회정의', 한경직은 '기독교와 현대경제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집회', 『동아일보』 1947년 1월 28일.

‘기독교 국가’ 건설론을 제기하며 그 이유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으로 ‘개인 인격의 존중 사상’, ‘개인의 자유 사상’, ‘만민의 평화 사상’을 들면서 그 근본을 성경에 두었다.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만 아름답게 핀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기독교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고 보고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였다.²⁵⁾ 특히 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노회, 총회 등에서 모든 정치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해왔기에 민주주의의 정치 훈련을 받은 이는 기독교 신자밖에 없다고 하였다.²⁶⁾

아울러 기독교가 새나라의 개인과 사회의 고상한 도덕을 수립할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만이 유일의 참종교이자 진리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는 새 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한경직은 일제시기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나라를 잃어본 사람으로서 우리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정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안다고 고백한 그는 국가의 실질적 존립 자체를 중요시했다. 오산학교에 다니며 이승훈, 조만식 등으로부터 받은 민족주의 영향은 국가 형성과 안정적 유지 등의 애국사상으로 표출되었다.

한경직에게 교회와 국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구상하는 새 국가의 건설, 사회이상의 실현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 “의회를 통하여 하는 합법적 민주주의”로 사회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회 이상을 실현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혁명을 일으켜 사회질서의 문란

25) 한경직, “건국과 기독교”(1947. 12.),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서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09), 105~106.

26) 한경직, “대한민족아, 깨어라”(1947.),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 118.

을 재래케 하는 것보다 의회를 통하여 하는 합법적 민주주의이어야 합니다. 물론 제도도 고쳐야 하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사람의 개조입니다. 중생하여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²⁷⁾

그는 국가건설 시기의 사회의 혼란을 가장 우려하였고, 특히 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과 사회안정을 우선적 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해 개개인의 각성과 노력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서있는 곳에 개인의 중생과 구원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 중생과 개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²⁸⁾

즉, 새 국가는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국가이어야만 하고 그것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중생이 밑받침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교회라고 보아 새국가 건설에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한경직이 기독교적 국가윤리로서 강조한 것은 바로 ‘공의’이다. 기독교인은 공의에 기초하여 국가를 만들 의무가 있고, 전민족의 복음화를 통해 ‘공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명령에 순복하는 나라를 만들 의무가 있으며, 둘째로는 공의에 기초하여 기독교의 국가적 이상인 자유 평등 박애가 실행되는 국가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중략) 우리가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전도운동을 개시하여 전 대한 민족의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순화한다면 공의의 나라, 기독교 독립

27) 한경직, “신앙과 의심(1947. 3. 8.)”,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 63.

28) 한경직, “교회란 무엇인가(1946. 12. 1.)”,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 21.

대한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²⁹⁾

그는 국가의 안녕과 질서, 평화가 공의의 법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였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법아래 만민평등이 준수될 때 축복받은 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⁰⁾

그리고 정교분리를 주장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킨다고 예를 들면서 “이 완전 분리주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도 적합하며 따라서 교회는 영적범위 안에서 완전 자유일 것이며 간접적으로 국가의 정신적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³¹⁾ 또한 정치가들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칼빈의 사상을 적극 수용하여 모든 주권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정치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한다고 한다.

“이것은 주권의 근본은 다 신에게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 권세를 얻었는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즉 그 권세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됨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모든 참 정치가는 다윗 이래로 글래드스톤, 링컨까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만약 이 책임을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옮기시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치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³²⁾

위와 같은 생각에서 그는 유물론과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남한의 국가건설과 정치지도자의 출현을 희망하고 지지했

29)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1946)”,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1, 29~30.

30) 한경직, “공의와 평화(1955. 7. 17.)”,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 2, 45~52.

31)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1946)”, 28.

32) 한경직, 위의 글, 25.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정치지도자를 배출하고 기독교적 정부가 구성되는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으로서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평화의 나라”인 미국을 모델로 하였다.³³⁾

한경직의 이같은 미국에 대한 인식은 서북지역 월남 기독교인들에게 대체적으로 공유되는 생각이었다. 많은 월남 기독교인들은 미국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기독교국가로 표상하였고, 미국의 역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이를 월남 기독교인들의 ‘북한 탈출’과 동일시하였다.³⁴⁾ 한국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정착되었고 해방 후 총회의 재건과 운영에도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며, 전후 구호활동에서 미북장로교, 미남장로교, 기독교세계봉사회 등 미국 교회나 선교단체를 통해 상당한 물질, 인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은 ‘공평과 선의’의 나라로 여겨졌다.³⁵⁾

김재준은 「기독교적 건국이념」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기독교적 최고이상의 실현’으로 제시하였다.

“기독교인의 최고이상은 하나님나라가 인간사회에 여실히 건설되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나라’라는 것은 超世間的 未世의 소위 天堂이라는 말로서 그 전부를 의미한 것인 줄 알아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전생활에 균림하여 성령의 감화가 생활의 전부분을 지배하는 때 그에게는 하나님나라가 임한 것이며 이것이 전사회에 침투되며 사선을 넘어 미래세계에까지 생

33) 한경직, 위의 글, 25.

34) ‘信仰없이 民主政治 없다. 아이젠하워 大統領의 政治觀’, 『기독교공보』 1953년 4월 20일 ; ‘美下院議員의 信仰統計’ 『기독교공보』 1953년 6월 1일.; ‘놀라운 役事條目祈禱會 - 美國 건너간 淸教徒이 시작.’ 『기독교공보』 1954년 11월 22일.

35) 1954년부터 1955년 장로교총회 수입 중 미국 NCC의 보조가 총수입의 51%를 차지할 정도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0회회록』, (1955), 333. ;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제37회회록』, (1952), 17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38회회록』, (1953), 195.

생발전하여 우주적 大極의 대낙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나라의 전모일 것이다”³⁶⁾

김재준에게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 속에 건설되는 것이었다. ‘건국’은 하나님 나라를 현실에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나라가 인간사회에 건설되고 인간의 전생활에 군림하여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국’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행복에서 찾았고,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하며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였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죄악이 없다면 국가나 관현이 필요없을 것이지만,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므로 이를 다스리기 위한 필수조치로서 국가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국가는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政體의 결정, 헌법의 제정, 정부수반자의 선정, 입법 등이 인민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 사상, 집회, 출판 등에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의를 억압하고 민주정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³⁷⁾

김재준에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자유’였다. 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 아래에서 발달된 자본주의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자유 존중에서 비롯되어 육성된 제도로 보았다. 다만, 올바른 운용을 위해 사회적 공통복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람이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간단

36)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1945. 8.)”, 『김재준전집』1(오산: 한신대학 출판부, 1992), 159.

37) “만일 국가가 없고 법이 없고 위정자도 없고 권위 있는 지배자가 없다면 그 혼선과 행악이 어떠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존재한 까닭에 국가와 관현을 세웠다는 진리를 명백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재준, 위의 글, 160.

없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⁸⁾

한경직과 마찬가지로 김재준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국가는 교회에 절대 불간섭해야 하고 교회 또한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규격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시대의 완급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완충적 태도를 보인다.³⁹⁾ 즉, 교회가 정치영역에서 기여할 것이 있으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요 정치는 세속의 기관이니 교회인이 정치에 관여함은 타락이다 운운하는 말은 물론 잘못된 단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자체가 무분별하게 정치의 소택에 뛰어들어 함께 뒹굴어서 남도 저도 별 소득없이 진흙만 뒤집어쓸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서 길러낸 좋은 인물을 정치, 경제, 교육에 근로자 운동에 보내어 그들을 그리스도적 이념하에서 변화시키도록 할 것이다.”⁴⁰⁾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상호 보조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교회는 좋은 인물을 길러내어 정치를 비롯한 사회에 내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교회가 “명철 정확하게 민중을 지도할 현대적 성자 기독교적 인격자를 보내줄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합리적 정교분리와 교회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제시한 것이다.⁴¹⁾ 그러한 측면에서 김재준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보다 사상적 지도자, 기독교청년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재준도 칼빈에 근거하여 주권의 근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하나님

38) 김재준, “민주주의론(1953. 5.)”, 『김재준전집』 3, 12~14.

39)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1945. 8.)”, 170.

40) 김재준, “한국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1947. 8. 5.)”, 『김재준전집』 1권, 245.

41) 김재준, 위의 글, 244.

주권론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와 치리자에게 허락되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다.⁴²⁾

“이제 권위의 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권위를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같이 피조자이며 죄인이다. 그러나 인류의 현실에 적응하여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치자의 권위를 허여하신 것이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말씀이 그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받들어 하나님이 교회를 밖으로 수호하며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하여서 하나님의 성의가 창달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⁴³⁾

주권의 소재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적이고 당연한 입장이었다. 해방 후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중고등학교 기독교교육 교재로 펴낸 『기독교교본』에도 “주권 소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신앙만이 바른 정의의 정치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⁴⁴⁾

김재준은 주권의 소재가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본뜻도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민주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 대다수 인민의 의견을 참조하는 행정방법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에 기독교 정치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를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기독교적 윤리의 원칙을 천명하여 현실을 기독교적 정의와 사랑위에 건설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민주주의를 기독교의 하위에 위치시켜 현실적

42) “조선 정부의 집정자가 될 자격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며 교회를 충성으로 받드는 자라야 할 것이다.” 김재준, “기독교의 건국이념”, 162.

43) 김재준, 위의 글, 161.

44) 임요섭, 『기독교 교본 6-기독교와 사회문제』,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53), 27.

45) 김재준, “종교와 정치의 인연(1946)”, 『김재준전집』1, 180~181.

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보았으며 기독교 사회윤리와 기독교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한경직과 김재준의 ‘기독교적 건국론’은 여러 측면에서 흡사하다. 한경직과 김재준 모두 새로운 국가로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들었고, 새국가는 종교적 도덕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였다. 한경직과 김재준 모두 하나님주권과 정교분리를 말한다. 그런데 정교분리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한다. 한경직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동일하게 보아 건국의 핵심으로 두고 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조하였다. ‘공의’에 기초한 건국을 위해 개인의 각성을 중요시 하였고 교회는 이를 실현할 기관이었다. 김재준에게 건국은 역사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주권의 큰 틀 아래 민주주의를 위치시키고 ‘자유’를 민주정치의 핵심으로 보고,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교회는 이에 합당한 인물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경직이 미국을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많은 월남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의했던 데 비하여 김재준은 미국민주주의가 기독교와 세속주의의 협작이라고 보고 그 자체가 절대화 이상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것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⁴⁶⁾

IV. 대정부 인식의 분화

제1공화국 시기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에 적극 호응하고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였다. 공산주의를 피해 월남한 이들에게 기독교인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과 초대정부는 기독교적 국가 건설을

46) 김재준, “기독교와 정치(1962. 11.)”, 『김재준전집』 5, 403.

실현시킬 수 있는 장치로 여겨졌다.

제헌국회의원과 초대 국무총리 서리 및 사회부장관을 역임한 이윤영, 충북도지사를 지낸 윤하영, 평남조선물산장려회 출신 김병연 등을 비롯한 많은 월남 기독교인들이 초대 내각에 진출하였다. 1952년 6월 결성된 ‘信友會’는 총 국회의원 210명 중 39명의 기독교인이 가입하여 조직되어, 친목 겸 원내 교섭단체로 활동하였는데, 총무단에 윤재근, 강경옥, 김인태, 재무에 박영출, 서상덕, 남송학, 외무에 황성수, 윤성순, 권병노 등이 참여했다.⁴⁷⁾

1948년 5.10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각 교회마다 지부를 만들어 이승만을 지지하였다. 장로교의 기관지였던 『기독교공보』는 선거 및 정치에 기독교인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시 기독교연합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기독교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국적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위한 기도일을 정하기도 하였다. 부통령 후보 이윤영, 함태영을 두고 교계 의견이 갈리기도 하였지만 모두 기독교인 부통령 당선에 합의하여 힘을 모았다.⁴⁸⁾ 이후의 선거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부를 지지하는 행동은 계속되었다.⁴⁹⁾

이 외에 국기배례를 주목례로 변경시킨 것, 군중제도를 도입한 것 등

47) 월남 기독교인과 제1공화국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강인철,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30(2009). 참고.

48)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될 것은 유력한 가운데, 교계는 부통령의 당선에 촉각을 세우며 여러 갈래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이윤영 목사를 지지하는 감리교와 월남시민, 함태영을 지지하는 한국신학계통의 신민학과, 이강성을 지지하는 정통 보수신학과였다. 『교회와 사회』, (1953. 9), 15~17.

49) ‘기독교인의 정치생활’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4일. ; ‘基督教界 渾然一體! 大統領에 李承晩 博士 推戴決議’ 『기독교공보』, 1952년 8월 4일. ; ‘總選舉와 基督教人’, 『기독교공보』, 1954년 5월 4일. ; ‘양심적 인물 등용- 거족적 내각으로 쇄신정치갈망’, 『기독교공보』, 1956년 5월 28일.

1공화국 시기 기독교와 정권은 밀착되어 있었다.⁵⁰⁾ 특히, ‘반공’의 이름으로 결집한 월남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반공시책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윤영, 윤치영, 백낙준 등은 ‘반공통일연맹’을 통해 강연을 하였고, 백낙준은 이승만이 제창하여 출범한 아세아민족반공대회 및 세계반공대회의 대표를 맡아 정부의 반공정책을 수행하고 홍보하였다.⁵¹⁾

그런데, 일반적으로 월남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제1공화국의 정책에 찬성했다고 하지만, 모든 월남 기독교인들의 대정부인식이 친정권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 성향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한경직은 직접적인 정치참여는 없으나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에 참여했다. 월남인으로서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다.⁵²⁾ 특히 한국전쟁 중에는 여러 방면으로 정부를 지원하였다. ‘한국기독교구국단’, ‘구국청년지원병’ 등 기독교 의용대를 편성하여 군 병력을 지원하고, 수 백명의 선무공작대원을 각처에 파송하여 민심 수습을 도모하고, 반공사상을 강조하면서 국민정신 계몽활동을 펼쳤다. 미국 선교부의 지원을 받아 구호활동에도 열심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미국 등을 순방하였고 설교를 통해 정부를 지지했다.⁵³⁾

그런데 1950년대 후반 들어 한경직은 설교를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50)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5회 회록』, (1949), 74.

51) ‘반공연맹기념대회’, 『경향신문』, 1954년 7월 22일.; ‘백낙준씨결정 반공대회수석대표’, 『동아일보』, 1954년 3월 21일.; ‘반공대회대표명단정식발표’, 『동아일보』, 1956년 2월 12일.; ‘이대통령에 백대표귀국보고’, 『경향신문』, 1958년 4월 3일.; ‘대표5명 결정. 사차아주반공대회’, 『경향신문』, 1958년 4월 22일.

52) 한경직은 1948년 실시된 조선민주당 이북인대표단중앙선출위원회에서 이윤영, 정일형, 백낙준 등과 함께 도민대표자로 선출되었다. ‘이북대표단 특선위원선출’, 『동아일보』 1948년 4월 29일.

53) 영락교회 50년사편찬위원회 편, 『영락교회 오십년사』 (서울: 영락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1998), 94~124.

시작한다.⁵⁴⁾ 그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법과 여론에 의해 운용된다고 할 때, 어떤 개인이나 정당이 폭력으로 정부를 계속하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고 강하게 설교하였다. 해방 후 일어난 정치적 암살 사건을 열거하면서 현실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정치인들이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테러, 폭력주의를 믿고 있다고 하며 그것은 공산주의 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고 혹평하였다.⁵⁵⁾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임을 상기시키고 입법자들부터 법을 지켜야 함을 말하면서 당시 헌법이 자주 바뀌면서 그 존엄성에 손해가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헌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민주주의 국가 원칙에 의해 한번 제정한 것이지 어떤 소수나 정당에 의해 조변석개로 고치는 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을 존엄하게 지켜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 하였다.⁵⁶⁾ 이는 제헌 헌법 이후 제1공화국의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헌법이 개정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 할 것이다.

1958년 선거를 앞두고 한경직은 재차 ‘공의’를 강조한다. 그는 로마서 13장 7절을 인용하면서 각 사람의 도덕적, 법률적 권리와 명예, 생명과 재산 등을 존중히 여기고, 공평히 보호하고 대우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였다. 헌법에 의지해서 같은 법률 아래 빈부귀천의 구분 없이 납세, 병역, 재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선거에서도 정부는 공평한 입장에서 자유분위기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합당한 사람을 양심대로 투표하여 국회를 형성할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54) 임회국은 한경직의 설교를 중심으로 장로교회가 1956년부터 친여권적 정치개입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교계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임회국, “제1공화국시대(1948-1960) 장로교회의 정치 참여, 이와 관련된 한경직 목사의 설교”, 『장신논단』 제44집 (2012), 25.

55) 한경직, “생명의 존귀성(1957. 1. 17.)”,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2, 296~297.

56) 한경직, “성서적 애국심(1957. 3. 3.)”,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2, 332~338.

하였다.⁵⁷⁾ 당시 모략과 공갈, 위협과 테러가 충만하다고 선거 분위기를 통탄해 하며 투표를 통한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당부하였다.⁵⁸⁾ 또한 당시 정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⁵⁹⁾

또한 기독교인 스스로 현실 속에서 기독교적 애국심을 국가와 사회에 발현시켜야 한다고 하며, 당시 사회가 속속들이 썩어가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개개인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였다. 사회는 결국 개인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를 개혁하고 옳게 만드는 모든 운동도 결국 한 사람 부터 깨닫고 시작된다고 보았다.⁶⁰⁾ 즉, 혼란스런 사회의 상황에서 도덕과 양심이 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고 사회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가윤리로서 ‘공의’를 강조한 그는 그것이 지켜지는 세부적 노력으로서 우선 개인의 각성을 들고 있다.

1950년대 말 정치권의 부패상을 비판하던 한경직은 4.19가 일어나자 이를 ‘혁명’으로 높이 평가한다. 4.19를 ‘민주혁명’으로 명명하며 해방 후 교육 받은 새 세대의 공헌으로 치하하였다. 그는 젊은 학생들의 애국심, 정의감, 희생정신이 세계 만방에 빛나게 되었고, 한국 민족은 불법과 불의를 참을 수 없고, 언제든지 자유와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세계에 나타내게 되었다고 기꺼워하였다. 아울러 과거 기독교인들이 부패한 정권 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 불의에 대해 강하게 싸우지 못하고 묵인하고 동참한 모든 죄의 회개를 촉구하였

57) 한경직,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1958. 4. 13.)”,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3, 70~72.

58) 한경직, “우주시대와 신앙 생활(1958. 4. 27.)”,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3, 85.

59) “정당이 큼니까? 나라가 큼니까? 정당이 국가를 위해서 있습니까, 국가가 정당을 위해서 있습니까? 중심을 바로 찾고 정치를 해야 나라가 바로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경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생활(1959. 1. 18.)”,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3, 355.

60) 한경직, “한 소년의 헌신과 그 결과(1958. 11. 30.)”,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3, 329~330.

다.⁶¹⁾

한경직은 남한 정부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기독교적 국가 건설을 소원하며 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부패상을 목도한 그는 더 이상 ‘공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4.19를 ‘민주혁명’으로 높이 평가한다.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같은 위치에 놓고 공의를 강조한 한경직에게 공의가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⁶²⁾

1950년대 특별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재준에게 정부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조선신학원의 터를 잡는 과정에서 미군정의 협조로 천리교재단을 받아 세운 것, 조선신학교가 한국신학대학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 제1공화국에 참여한 오천석, 백낙준 등 관료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였던 것, 당시 부통령 함태영이 조선신학교 이사장에 있었던 점은 김재준 또한 당시 일반적인 기독교계와 제1공화국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보여준다.⁶³⁾

이에 그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건국이념을 제시하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다. 「기독교적 건국이념」에서 밝힌 인물양성의 필요성을 스스로 현실에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우선 기독교 내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한국 기독교가 해방 후 대통령 이하 고위직에 기독교인이 많고 우방국이 기독교국가라 하여 기독교윤리를 역사에 만들어 가는데 착안하지도 못하면서 미국의 호화로움만 배워서 극성을 부린다고 비판하였다. 무분별한 미국 추종과 시대와 역사에 눈감은 기독교인에 대한

61) 한경직, “회개와 새로운 날(1960. 5. 22)”. 『한경직 목사 설교전집』4, 348~355.

62) 이후 제2공화국시기의 혼란스런 정국상황을 ‘패역의 시대’로까지 규정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도발을 우려하였던 한경직은 체제안정의 우선을 이유로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반공시책을 적극 지지한다. 영락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영락교회50년사』, 183.

63) 고지수,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서울: 선인, 2016), 265.

반성을 촉구하였다.⁶⁴⁾

4.19혁명 이후 김재준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한다. 그는 학생들이 앞장 선 4.19를 보고 무기력했던 기성세대를 반성하며 4.19혁명을 학생들의 ‘의거’로 정의 내렸다. 이는 ‘혁명’이 폭력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데 비하여 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순정한 윤리적 고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래의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의를 위한 외침으로서 “3.1운동 때의 그것과 같은 정신적 윤리적 선언”이라고 했다.⁶⁵⁾ 이후 김재준은 한국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 임정요인들이 환국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을 ‘나이브’한 ‘크리스찬 유토피아니즘(Christian Utopianism)’이라고 표현한 김재준은 한국교회가 해방 전 한국역사에 공헌한 바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민주건설의 첫 과업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다. 상비된 지도역량이 없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보냈음을 돌아보고 향후 “교회를 교회되게”하기 위해 말씀의 선포자로서 정의에 용감할 것, 기독교 윤리를 강화하여 닥쳐오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비판과 그 구체적인 해결원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⁶⁶⁾

월남 기독교인의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함석헌으로부터 강하게 터져나온다. 그는 『사상계』⁶⁷⁾에 실린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에서 이승만 정부를 향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함석헌은 이 글에서

64) 김재준, “역사참여의 문제와 우리의 실존(1958. 3.)”, 『김재준전집』4, 493.

65) 김재준, “4.19이후의 한국교회(1961. 4.)”, 『김재준전집』 5, 127~129.

66) 김재준, “한국교회의 민주참여와 사명(1960. 6.)”, 『장공 김재준전집』 5, 65~66.

67) 사상계는 장준하를 필두로 서북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월남 지식인들의 대표적 공론장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사상계의 성격은 함석헌의 참여로 변화한다. 최규진, “한국전쟁 뒤 반공이데올로기 지형과 지식인의 자리-1950년대 『사상계』의 사상”, 『사람』61(2017), 276~287.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분단정부를 부정했다. 남북한 정권이 미국과 소련의 앞잡이라고 비판하고 6.25는 꼭두각시 노름이었으며, 꼭두각시는 나라가 아니므로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분단과 전쟁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묻고 있다.⁶⁸⁾ 또, 이승만 정권이 ‘안보’와 ‘반공’을 내세워 민중의 자유를 빼앗고 민주주의를 손상시켰다고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하였다.

“10여 년 정치에 한 일이라곤 백성의 살을 깎고 그 정신을 짓밟은 것밖에 없다. 그래 이 풀 된 것 아니냐. 민주주의 시대라는 이때에, 백성의 입을 막고 장남같이 따라오기만을 요구했으니 백성이 낙심이 아니 될 리가 없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 그게 무슨 자유의 나라며 그 정치에 무슨 치하가 있겠는가? 돼지처럼 묻히고 구더기처럼 파먹고 강아지처럼 꼬리를 치는 것으로 잘살고 잘난 것으로 안다면 모르려니와 그렇지 않은 내게는 기쁨 없다. 내게 자유를 다오!”⁶⁹⁾

또한, 기독교가 “해방과 6.25라는 중대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공산주의와 만나서 기독교의 믿음과 사랑을 발휘할 때인데 겁내고 미워하기만 했지 이긴 것이 없다”고 하여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비극 앞에 기독교계가 민중의 고난을 외면하고 교세성장에만 몰두하였다고 비판하고 자성을 촉구하였다.⁷⁰⁾

정부수립 이전부터 월남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국가 건설에 소망을 두

68)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할 수 있으나, 참 해방은 조금도 된 것 없다. 부모 처자가 남북으로 헤어져 헤매는 나라가 자유는 무슨 자유, 해방은 무슨 해방인가? 잘못된 애당초 전주 이씨에게서 시작이 됐다. 매양 일을 그르친 것은 이놈의 남북 충돌이었다”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思想界』, (1958. 8.), 26~28.

69)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 一九五九年 三一節에 부치는 글”, 『思想界』, (1959. 4.), 251~265.

70) 함석헌, “한국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思想界』(1956. 1.) 126~140.

었고, 강력한 반공과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제시한 1공화국 정부에 호의를 보였다. 그러나 1공화국의 부정과 부패가 날로 더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기독교계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경직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설교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김재준도 4.19를 계기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본격화 한다.

또한, 이승만 정부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하며 전민족이 평화적으로 노력할 '새 나라' 건설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비록 주류 세력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소리들은 1960년대 이후 기독교가 사회윤리를 제시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

V. 나가는 말

해방 후 북한지역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는 등 새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발빠르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의 진주와 사회주의 체제의 등장은 기독교인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에 월남을 선택하는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 전쟁 이전에 월남하는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월남하는 경우가 많아 남한내에서 비교적 잘 정착하였다. 교역자를 비롯하여 기독교인 엘리트들의 월남도 해방 후에 대부분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피난민교회의 역할이 컸다. 고향을 떠나왔다는 처지를 공유하고 종교적 신앙심으로 결집한 월남 기독교인들은 구제와 위안이 있는 교회에서 위로를 얻었다. 반면, 전쟁 이후 월남한 이들은 피난으로 급하게 내려온 경우가 많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계층적으로도 이전보다 하층계급이 많았다. 해방 직후 월남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한 엘리트층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교단 내에서도 세력을 점하게 되면서 이들의 성향이 월남 기

독교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공산주의를 피해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국가건설을 꿈꾸었다. 한경직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정교분리와 하나님주권을 주장한다. 한경직에게 국가는 존립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과 사회안정을 위해 개인의 각성과 노력을 중시하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다고 하였다. 김재준은 현실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한다. 국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존재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민주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역시 정교분리와 하나님주권을 주장한다. 주권의 소재가 하나님에게 있기에 민주주의도 기독교의 아래 위치하는 것으로서, 이에 기독교 정치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해야 하며 교회는 민중을 지도할 인물을 길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월남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와 반공을 앞세우고 기독교인이 많이 포진한 새 정부에 호의적이었다. 이에 1공화국 시기 내내 월남 기독교인 전체는 반공, 보수, 친정부적이라는 이미지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들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계속되자 이를 비판하는 소리가 기독교 내부로부터 나온다. 한경직과 김재준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민주주의가 침해받는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울러 해방 후 기독교가 역사앞에 불의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민중의 기본권을 억압한 정권에 대한 함석헌의 날카로운 지적은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행보는 1950년대 월남 기독교인의 성향이 한 가지 통념으로 수렴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향후 여러 갈래로 사회를 향한 인식이 분화되는 실마리가 되었다.

이 글은 월남 기독교인의 국가건설론과 사회인식을 1950년대에 한정하

여 살펴보았다, 1960년대 기독교계의 대정부 인식과 사회 활동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50년대 후반 기독교계의 변화에 집중하고자 했으나 보다 세부적으로 천착하지 못한 한계가 많다. 추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기독교공보』
『동아일보』
『사상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회록』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서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09.
『김재준 전집』. 오산: 한신대학 출판부, 1992.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김귀옥.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서울: 선인, 2008.
강정구. “해방 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한국사 회변동』, 서울: 풀빛, 1992.
강인철. “월남 개신교·천주교의 뿌리- 해방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사 비평』 제17집 (1992).
강인철.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0집 (2009).
고지수. “해방 후 장공 김재준의 ‘기독교적 건국론’ 이해-사료『기독교의 건국이념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54집 (2014).
김귀옥. “아래로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허물기; 정착촌 월남인의 구술사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가을, (1999).
김귀옥. “해방직후 월남인의 서울 정착- 월남인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접근.” 『전농사론』 제9집 (2003).
김보영. “분단과 전쟁의 유산, 남북 이산(분단 디아스포라)의 역사.” 『역사학보』 제 212집 (2011).
김수자. “한국전쟁과 월남여성들의 전쟁경험과 인식- 지역 차별인식과 결혼관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0집 (2009).
김아람. “38선 넘고 바다 건너 한라산까지, 월남민의 제주도 정착 과정과 삶.” 『역사문제연구』 제35집 (2016).
김아람. “한국전쟁기 황해도민의 서해안 피난과 전후 전라남도 정착.” 『동방학지』

- 제180집 (2017).
- 윤정란. “한국전쟁 구호물자와 서북출신 월남기독교인들의 세력화.” 『승실사학』 제34집 (2015).
- 연규홍. “해방정국과 기독교의 건국운동.” 『한국교회사학회』 제14집 (2004).
- 이세영. “해방~한국전쟁기 인천지역 월남민의 정착과 네트워크 형성.” 『동방학지』 제180집 (2017).
- 이신철. “월남인 마을 ‘해방촌’(용산2가동) 연구- 공동체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제14집 (2000).
- 이현주. “해방후 인천지역의 전재동포 귀환과 사회변화.” 『인천학연구』 제4집 (2005).
- 이혜정. “한경직 연구의 관점: 기독교적 건국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0집 (2009).
- 조형, 박명선.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 1985.
- 최규진. “한국전쟁 뒤 반공이데올로기 지형과 지식인의 자리-1950년대 『사상계』의 사상-.” 『사림』 제61집 (2017).
- 한성훈. “월남민의 서사: 출신지와 이산가족, 신념, 전쟁 체험을 중심으로.” 『史林』 제60집 (2017).
- 한성훈. “월남 지식인의 정체성: 정치사회변동과 자기 결정성.” 『동방학지』 제180집 (2017).

논문투고일: 2018년 6월 26일

심사개시일: 2018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11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월남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적 국가건설론을 바탕으로 그 사회윤리적인 함의를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를 피해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국가건설을 꿈꾸었다. 한경직은 기독교와 민주주의를 동일하게 인식했다. 국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으며 그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의 실현과 사회 안정을 위해 개인의 각성과 노력을 중시하였으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다고 하였다. 김재준은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을 역설했다. 국가는 인간의 죄 때문에 존재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민주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한경직과 마찬가지로 정교분리와 하나님주권을 주장했다. 주권의 소재가 하나님에게 있기에 민주주의는 기독교 하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정치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도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교회는 민중을 지도할 인물을 길러내야 한다고 하였다. 대체적으로 월남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와 반공을 앞세우고, 기독교인이 다수 포진한 정부에 호의적이었다. 제1공화국 시기에 월남 기독교인들은 친미, 반공, 보수, 친정부적이라는 이미지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계속되자 정부에 대한 비판과 교회에 대한 반성이 기독교 내부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경직은 설교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김재준도 4.19를 계기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본격화 한다. 함석헌의 날선 외침도 새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월남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국가인식을 바탕으로 그 사회윤리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

주제어: 월남 기독교인, 남한정착, 기독교 국가 건설, 국가윤리, 사회인식
